

서울문화재단
유망예술지원사업
선정 작품 발표

2024

2024 유망예술페스티벌

2024.9.3 (화) - 12.8 (일)

청년예술청 그레이룸

차연서

손수민

박정은

박한희

티오비그룹

이지혜

목차

1. 들어가며		2
2. 2024 유망예술페스타 전체일정		3
3. 작품 소개		
차연서	전시 살도 뼈도 없는 나에게 Feed me stones	4
손수민	전시 나는 옐로우에 유색에 논-칼라	8
박정은	공연(현대음악) 차꼬와 수갑	12
박한희	공연(다원) Reaching towards a Way of Life	16
티오비그룹	공연(현대무용) Are You Guilty?	20
이지혜	공연(연극) <input type="text"/> blank 햄릿	24
4. 서울문화재단 소개		28
5. 청년예술청 소개		30

서울문화재단 청년예술청은,

청년예술인이 자유롭게 상상하고 도전하며 때론 실패를 경험하고 성장하는
안전한 창작 실험의 공간입니다.

특별히 올해는

‘동시대·예술적 관점·새로운 접근·독창적 신작’이라는 질문을 통해
여섯 명의 젊은 예술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차연서, 손수민, 박정은, 박한희, 티오비그룹, 이지혜.

이 여섯 예술가의 시선은 삶과 죽음, 주류와 비주류, 행동과 침묵, 다수와 소수,
자아와 타자 등 구체적이고 반복되는 우리의 현실 속 갈등에 닿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갈등과 집요하게 마주하며 세상에 새로운 소통과 논의를 일으키려는
의지를 예술가만의 참신하고 독창적인 관점으로 풀어내 작품에 담았습니다.

청년예술청은 그 고군분투의 과정과 결실을 <유망예술페스타>라는 이름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연극, 무용, 시각, 음악 등으로 명명되는 장르의 경계를 뛰어넘어
자신만의 독특한 영역을 개척해 나가는 젊은 예술가들.

해결되지 않은 질문들과 끝없는 창작의 고뇌 속에서도
묵묵히 자신만의 세계를 만들어가는 여섯 예술가의 여정이
유망예술페스타를 찾아주신 여러분들의 삶에 따뜻한 응원이 되길 바랍니다.

Artist & Work Line Up

2024.9.3 (화) - 12.8 (일)
청년예술청 그레이아룸

차연서 전시 살도 뼈도 없는 나에게 9.3 (화) - 9.13 (금)
Feed me stones 15:00 17:00 19:00
*9.9 (월) 휴관

손수민 전시 나는 엘로우에 유색에 논-칼라 10.1 (화) - 10.5 (토)
14:00 - 20:00
*10.3 (목) 휴관

박정은 공연(현대음악) 차꼬와 수갑 10.18 (금)
19:30

박한희 공연(다원) Reaching towards a Way of Life 10.25 (금) - 10.26 (토)
금 19:00 토 18:00

티오비그룹 공연(현대무용) Are You Guilty? 11.1 (금) - 11.3 (일)
금 20:00 토 19:00
일 16:00

이지혜 공연(연극) [] blank 햄릿 12.4 (수) - 12.8 (일)
평일 19:30
주말 15:00

관람 안내 및 문의



작품 소개 #1 차연서

살도 뼈도 없는 나에게 Feed me stones



2024 유망예술페스타

차연서

살도 뼈도 없는 나에게 Feed me stones

차연서는 평면 연작 <축제>를 통해 무연고자들, 벌레들, 시어(詩語)들을 자르고 그들이 매달릴 자리를 마련한다. 끝장난 다음에도 끝나지 않는 끝, 그 안에 허물어진 마침표들을 응시하는 과정은 저리고 가위눌리고 열리는 몸(들)을 돌본다.

Through the recent drawing series Festival, Cha Yeonså cuts and draws unclaimed bodies, bugs, and poetic words, and prepares the places for them to hang. The process of gazing at the ends that never end and the broken periods within them takes care of the body(s) that is numb, nightmare-seized, and open.

이력 및 작품 활동

개인전

2024 살도 뼈도 없는 나에게 Feed me stones, SAPY Gray Room, Seoul

꽃다발은 아직 KKOCH-DA-BAL is still there, Sahng-up Gallery Euljiro, Seoul

2023 이 기막힌 잠 This Unbelievable Sleep, Energywhoisshe Games, Online

2022 Every mosquito feels the same, This is not a church, Seoul

단체전

2024 슬픈 캡션 Sad Captions, SeMA Bunker, Seoul

혀 달린 비 Tongue of Rain, Art Sonje Center, Seoul

2023 모텔전 The Motel, Misungjang Motel Hongdae, Seoul

2020 크게 슬플 일인가요 Be Sad I Dare You, Gallery175, Seoul

PROJECT

2022 Live Performance 모스키토라바쥬스 Mosquitolarvajuice, Les601 Seonyu, Seoul

2022 Game Release 3 Households, Steam, Online

CONTACT

Instagram | @energywhoisshe

Web | energywhoisshe.com

Mail | energywhoisshe@gmail.com

전시

살도 뼈도 없는 나에게 Feed me stones

9.3 (화) - 9.13 (금) *9.9 (월) 휴관

15:00 17:00 19:00

퍼포먼스 9. 7 (토) 19시 전시 관람 후 (30분)

관객과의 대화 9. 13 (금) 19시 전시 관람 후 (60분)

전체 관람가

참여

차연서(작가) | 동환스님(목소리) | 이솔엽(사운드디자인, 음향감독), 김혜정(공간디자인, 무대감독), 김진솔, 이정모(셋업 크루), 김주슬기(조명감독) 전하경, 윤효영(조명 크루) | 하상현(협력기획), 인현진(그래픽디자인), 소제(한-영 번역), 최빛나(멘토), 양효실(비평), 고대영, 손나리, 이상화(중간자문) | 죽림표구사(표구) | 故 차동하(인용 작품 2점, <축제 09 #3> 2009, 닥종이에 채색, 103x180cm; <소묘 90 #3> 1990, 닥종이에 먹, 132x165cm), 김언희(인용 시 3편, 「귀류」, 「없소」, 「황혼이 질 때면」)

CHA Yeonså(Artist), Ven. Donghwan(Chanting), LEE Solyeob(Sound design, Sound director), KIM Hye Jeong(Spatial design, Installation director), KIM Jin Sol, LEE Jung Mo(Installation crews), KIM JU Seulki(Lighting technical director), JEON Hakyeong, YUN Hyoyoung (Lighting crews) | HA Sang Hyun(Associate curator), IN Hyunjin(Graphic design), Soje(Kor-Eng Translation), Binna CHOI(Mentoring), YANG Hyosil(Critique), KO Daeyoung, SOHN Nari, Lee Sanghwa(Advisory on work-in-progress) | Jungnimpogu Gallery(Mounting) | The Late CHA Dongha(Quoted original paintings), KIM Eon Hee(Quoted original poems)

작품내용

일몰과 일출 사이의 검은 시간을 황혼으로서 지속시키는 샌노란 통로가 고여 있다. 좁은 파장의 황색 빛만을 발광하는 저압 나트륨램프 the low pressure sodium lamp와 그것이 만들어내는 단색 monochrome의 풍경은 가위눌림 속 생생했던 마주침을 마치 없었던 세계처럼 접어 닫는다. 전시에 초대된 모든 존재는 서서히 색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선명해지며 – 잠기고 soaked, 들리고 lifted, 들뜨기 peeled 시작한다. 이제 죽은 자와 산 자가 하나의 탕에 들어간다. 벼들가지를 질겅이며 양치질하고, 훠손되어 너덜거리는 모든 살과 뼈는 통통 불어 스스로 벗겨지기 시작한다. 그 많은 이들이 때를 밀었는데도, 멀어지는 풍경은 깊은 산 속의 옹달샘처럼 검고, 밝고, 맑다.

컨셉 및 의도

“모르는 / 이를들이 / 실뱀처럼 내 귓속으로 흘러드는데”

김언희, 「귀류鬼柳」

“심야의 면도질 새파랗게 면도질한 혀바닥 같은 것은 여기에 없소”

김언희, 「없소」

“황혼이 질 때면 // 혈, 혈, 혈 / 웃는”

김언희, 「황혼이 질 때면」

창작 과정의 질문들

‘축제’는 내게 죽음에 대해서, 사체에 대해서, 그리고 어린 시절에 대해 말하기 위해 무언가를 통제하는 것의 불가능성을 가르친다. 서로 눈이 마주칠 정도로 ‘축제’를 수없이 직면할 때, 그 마비된 시간 속에서는 역설적인 돌봄의 관계가 생겨난다. 이러한 기담奇談 혹은 기행紀行을 공공의 자리에서 모두에게 말할 수 있도록 – ‘축제’는 어떤 간섭이나 격려도 없이, 그저 바라본다.

The Festival teaches me the impossibility of control when it comes to death, corpses, and childhood. Facing the Festival and meeting their gazes, a paradoxical relationship of care emerges inside that paralyzed time. To these strange tales or travels to be shared publicly—the Festival simply observes without any interference or encouragement.

멘토 코멘트

최빛나 (2025 하와이트리엔날레 공동예술감독)

대개 금기되거나 외면당하는 것을 하나의 반기도 없이 처절함도 없이 마주하고, 연기하고, 그리고 기록하며 잔잔한 사건을 읽어내는 일을 줄곧 해오는 것. 지난 몇 년 사이에 만난 금기의 대상은 죽음이다. 죽음을 맞이한 몸과, 몸을 떠난 영을 마주하고 연기하고 기록하며 때론 심지어 아버지의 유품인 오색의 닥지를 오려가며 어루만지기도하면서 그는 죽음을 외면했거나 두려워했거나 애도의 이름 아래 슬픔의 웅덩이에 빠져 있었거나 하는 모두에게 의연히 죽음을 만나고 함께 하기를 권유한다. 물론 선택은 관객의 몫이지만 이 권유를 수용하는 자에게는 기쁜 슬픔 혹은 슬픈 기쁨의 ‘축제’가 기다리고 있으니, 쉽게 거절하지 않으면 좋겠다.



손수민

나는 옐로우에 유색에 논-칼라

Unmellow Yellow

손수민은 주로 누군가 실제 겪은 일에 대한 고민으로부터 작업을 시작한다. 집단 안에서 권력이 되어 작동하는 가치들을 관찰하다 보면 견고해 보이는 이 사회의 경계와 틈이 보인다. 그 안에서 한계를 마주하며 갈등하는 우리의 경험을 영상 설치, 퍼포먼스, 출판물 등에 담고 있다. 작가가 관찰자로, 참여자로, 때로는 시나리오를 만드는 선동자가 되어 이런 사회에서 나는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가를 질문한다.

Soomin Shon engages with the production and performance of both coded and uncoded communications in the socially constructed environment. In her video installations, live interventions, and publishing projects, she is interested in what connects us and divides us as human beings. Exploring complex dynamics of social and cultural frameworks, her works explore ways to renegotiate one's presence.

*Please note that the translation aims to convey the essence and meaning of the original text in Korean

이력 및 작품 활동

개인전

2023 현실은 메타포 *If Reality Is the Best Metaphor*, SeMA창고, 서울
A Good Knight, 합정지구, 서울

단체전

2024 광주비엔날레15, 광주
2023 포킹룸, 탈영역우정국, 서울
비판적 기술 읽기, 여성을 위한 열린 기술랩, 서울

CONTACT

Web | linktr.ee/soominshon

전시

나는 옐로우에 유색에 논-칼라

10.1 (화) - 10.5 (토) *10.3 (목) 휴관

14:00 - 20:00

퍼포먼스 10.1 (화) 19:00

관객과의 대화 10.1 (화) 19시 전시 관람 후

전체 관람가

참여

고마운 분들 : Bryce Wilner, Bryant Wells, DhoYee Chung, Emma Gregoline, Evan Chang, Hicham Faraj, Hrefna Sigurðardóttir, Hua Shu, Jo Kim, Julia Schäfer, Julian Bittner, Kang Ma, Linda van Deursen, Liyan Zhao, Maya West, Micah Barrett, Muxi Gao, Neil Goldberg, Nicholas Weltyk, Nick Relph, Rosa McElheny, Severin Bunse, Simone Cutrì, Tuan Quoc Pham, Zack Robbins, Zhongkai Li, Ziwei Zhang, 김지연, 고금화, 양효실, 최빛나

작품내용

손수민은 견고하지 않은 재료들과 일상의 상황들을 응용한 퍼포먼스, 게임 등의 형식으로 유희적 몰입과 자발적 수행을 독려하는 시스템을 실험해왔다.

전시 <나는 옐로우에 유색에 논-칼라>에는 건물의 정중앙에 위치하고 있지만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 소화전의 존재를 사회 구성원들의 관계로 은유화한 <Unmellow Yellow>, 난민 캠프에서 핸드폰 배터리를 충전하는, 누구나 익숙한 장면을 직접 재현한 <3개의 스마트폰, 22개의 충전기, 4개의 멀티탭>, 우리의 감각과 인식이 사회적, 문화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 드러내는 <캐치볼> 등을 선보인다. 경계와 배제된 지대에서 생산된 정형화되지 않은 언어는 작가에게 늘 관심의 대상이다.

색의 이름은 우리 사회에서 사람을 구분하는 말로도 사용된다.

색깔이 한 사회에서 상징하는 의미는 지리나 시대를 옮겨 다른 문화권에서는 전혀 다른 사회정치적 효과를 발휘하기도 한다. 인종, 성별, 종교, 지역, 계층 등의 수많은 경계를 만들어 끊임없이 서로를 구별하려는 행위의 이면을 관찰하며 새로운 공동체의 가능성은 고민해본다.



박정은 차꼬와 수갑

박정은의 작품은 강렬한 추동력을 가지고 화려하게 흐르는 독특한 사운드가 특징으로, 현재 한국의 젊은 작곡가 중에서도 손꼽히는 아방가르드 음향의 직조자다. 이런 음악세계는 그녀가 좋아하는 바슐라르(G. Bachelard, 1884-1962)의 표현, 즉 “젊고 생기발랄한 처녀”처럼 에너지를 뿜어내는, 살아서 질주하는 생명체를 연상시킨다. 따라서 그녀의 음악을 처음 접한 많은 이들은 강렬하고 화려한 총천연의 사운드에 압도당하는 경험을 한다. 박정은은 무대 위에 설치 작품이나 무용수들, 영상 등을 마치 음소재를 탐색하고 섞었던 것처럼 도입하기 시작했다. 특히 영상과 퍼포먼스의 결합을 비롯한 기이한 시각적 도상이 만들어내는 원초적인 그로테스크함이 특징이다. 다만 그녀의 음악세계는 아직 젊고 뜨거운 작곡가의 현재와 그 성향을 반영하고 있기에, 미래의 음악이 어떻게 변모할지는 짐작하기 어려우며, 그리고 여기까지 오는 작곡의 여정 또한 현재와 완전히 같지는 않았다. / 글 이민희 음악평론가 · 음악학자

이력 및 작품 활동

추계예술대학교 작곡학사, 한양대학교 작곡석사
하노버 국립음대 작곡석사, 뒤셀도르프 국립음대 작곡 최고연주자과정 졸업

오스트리아 Impuls International Composition Competition, Wittener Tage für neue Kammermusik, 독일라디오 현대음악 포럼(Forum neuer Musik 2014, 2015), 베를린-Bak theater berlin, 독일 니더작센 주 과학문화부, 바이마르-Franz Liszt Stipend Weimar, ISCM world music days, Langen Nacht der Kirchen in Hannover, 아르헨티나- Sala Delmira Agustini del Teatro Solis, Uruguay, Klangforum Wien, 스위스 바젤, 미국 샌프란시스코, 영국 베밍엄, 대만 현대음악제, 통영국제음악제, 범음악제, 우란문화재단, 서울창작음악제 등 다양한 페스티벌에서 위촉 및 연주
독일 출판사 Helbling Verlag, EDITION AVANTUS 악보 출판
현재 추계예술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단국대학교, 국민대학교 출강

CONTACT

Youtube | youtube.com/@jungeunPark0816
Mail | jelesk@naver.com

공연(현대음악)

차꼬와 수갑

10.18 (금)

19:30

러닝타임 90분

관객과의 대화 10.18 (금) 공연 종료 후

전체 관람가

참여

박정은(작곡/연출), 소리퍼커션(최소리, 이안드레, 곽아영), 유현수, 최민선,
문지승, 윤승호, 차종현, 장두익, 송정훈, 안효정, 김민욱, 조예본, 공지수, 전유정

작품내용

1. 강제하는 자유 (타악기 양상블, 무용수 2명, 설치품, 전자음악)
2. 낭독극1
3. Balance (오보에, 클라리넷, 섹소폰)
4. 낭독극2
5. 심연 (아쟁솔로)
6. 낭독극3
7. Edge (플룻, 드럼셋)
8. 낭독극4
9. 중독 (전자음악, 무용수2명)
10. Radio performance (타악기 양상블, 청중들)
11. Daily song (타악기 양상블, 설치품)
12. 낭독극5
13. 질곡의 소리 (피리, 아쟁, 국악타악기)

컨셉 및 의도

질곡(桎梏)

1. 옛 형구인 차꼬와 수갑을 아울러 이르는 말
2. 몹시 속박하여 자유를 가질 수 없는 고통의 상태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본 공연은 강제하는 자유 속에 숨어 안식을 찾지 못하는 우울증이 지배하는 이 시대에 대한 이야기다. 커다란 햄스터처럼 청바퀴를 열심히 돌리는 동시대의 사람들, 열광적으로 노동 속으로 뛰어 들어가 결국 쓰러진다. 나를 실현한다는 믿음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를 착취하고 상해를 입힌다. 그렇게 소진, 번아웃 된다. 또한 우리는 다양한 정신적 질환을 겪게 된다. 불안감, 조울증, 조현병, 인격장애… 어쩌면 우리는 자유로워 보이는 ‘속박’ 안에서 핵 개인주의를 살고 있다. 특히 같은 것들이 넘쳐나는 SNS의 모습들은 질주하는 정지 상태에 가깝다. 같은 모습의 과잉소통, 과잉생산, 과잉소비, 과잉광고들이 넘쳐난다. 수많은 친구와 팔로워를 맷으면서 어떠한 타자도 만나지 못한다. 10초도 안 되는 짧은 스토리에 우리의 눈은 혼수상태가 되고 디지털 과잉 소통에 정신이 팔려있다.

어떻게 혼수상태의 눈을 뽁고, 자기 몫입적 개인주의에서 탈피해서 행복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방향과 의미를 다시 찾고 허무에서 빠져나와 자기만의 이야기로 살아갈 수 있을까?

2024년의 질곡(몹시 속박하여 자유를 가질 수 없는 고통의 상태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의 나와 우리 그리고 사회에 대해 깊이 생각한다. 방향도 없고, 의미도 사라지고 깊은 허무에 빠진 고통스러운 핵 개인의 시대에 대한 비판적이고 솔직한 이야기를 음악과 무용, 연기 그리고 설치품을 통해서 보여준다.

창작 과정의 질문들

이 시대, 우리들의 ‘질곡’은 무엇일까?
그리고 나에게 차꼬와 수갑은 어떤 것들일까?

나는 작곡가이자 한 아이의 엄마로서, 예술가로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친다.
예술을 온몸으로 감각하고 싶은 목마름, 이 행위가 ‘진실’이라는 믿음을
나를 속박하면서 동시에 해방시킨다.

멘토 코멘트

김덕희 (서울시뮤지컬단 단장)

박정은의 <차꼬와 수갑>은 연주회장을 벗어난 새로운 공간에서 체험하는 현대음악 공연이다. 현대음악 공연이면서도 음악·무용·연극·문학의 장르들이 연주·연기·낭독·춤 등의 형식으로 펼쳐지며, 제목에서 말하는 ‘차꼬와 수갑’이라는 굴레를 ‘이질성’이라는 키워드로 해체시킨다. 불확실한 주관의 결합으로 하여금 선명한 해방감을 제시해 주는 공연이다.



박한희

Reaching towards a Way of Life

박한희는 기획, 퍼포먼스, 글쓰기를 통해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체화된 몸과 그 조건과의 관계를 기록하고 이를 극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안무가의 리서치랩 <시적신체담론>을 통해 개인을 둘러싼 문화적 현상이나 사회적 징후가 담긴 이들의 몸을 바라보고 그 몸이 얹혀있는 환경을 매개로 새로운 삶의 형태나 제안을 탐색하는 것에 관심이 있다.

She records and dramatis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body of individuals living in the city and their urban environment through producing, performing, and writing. While carrying out the choreographer's research lab, <Poetic Body Dialogues>, she sees how cultural phenomena and social signs surrounding individuals are accumulated in their "bodies." She is interested in exploring new forms and conditions of life through the "places" entangled with the body.

이력 및 작품 활동

대표 안무작으로는 인천아트플랫폼과 디스이즈낫어처치에서 공연된 <어슴푸레 웅성거리는 Vol. 1-2>, 국립아시아문화전당 <When the Curtain's up> 등이 있고 퍼포먼스 연계 출판물 [...]을 출간했다. Ob/Scene 페스티벌에서 몰텐 스팽베르크의 <휩닝엔>, <나는 이들 중 하나를 숨긴다>의 무용수로 활동했다.

CONTACT

Mail | hany.park.ld@gmail.com

공연(다원)

Reaching towards a Way of Life

10.25 (금) - 10.26 (토)

금 19:00, 토 18:00

러닝타임 70분

관객과의 대화 10.26 (토) 공연 종료 후

전체 관람가

참여

박한희(콘셉트/안무), Daniel Jeremiah Persson(협력안무/퍼포머), 정종원(화니또, 영상/나레이션 퍼포머), Sally O'Neill(드라마투르기), 베일리홍(사운드), 황규연(조명), 유유림(프로덕션 매니지먼트), 이보희(행정), 곽아람(퍼실리테이터), 양효실(자문), 오랩(유해인, 디자인)

안무가의 말

2024년 7월 17일 오후 3:57 Coffee Collective Bernikow, Kreisten Bernikow Gade2, 1105 København

5번의 리허설이 지나고 처음으로 쇄는 날이 찾아왔다. 아무 생각 없이 스몰 사이즈의 카푸치노를 시켰고 역시나 충분하지 않아 같은 것 하나를 더 시켰다. 잠시 스스로 텃을 하려 했지만, 모든 선택은 언제나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받아들이기로 한다. 창밖으로 지나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반팔에 긴 바지를 입고 있지만 두꺼운 스웨터에 짧은 반바지를 입은 사람도 있고 팔이 없는 민소매에 롱부츠를 신은 사람도 있다. 오늘만 해도 아침에는 비바람이 치다 지금은 뜬 견디게 쟁쟁하니 그럴 수밖에. 나는 이어폰을 끼고 있지만 사실은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 그들의 언어를 알아들을 수 없지만 그들의 다양한 감정과 상황을 느낄 수 있다. 화가 난 전지, 슬픈지, 걱정이 되는지, 신나는 일이 있는지.

지난 5일 동안, 그리고 지난 5년 동안 이 작업을 준비하며 많은 목소리를 들었다.

다니엘은 아마도 전라도 광주에서 태어났다. 그의 첫해는 생물학적 엄마의 품에서 또 다른 아홉 달은 보모의 품에서 그리고 스웨덴으로 보내졌다. 보내지지 않았다면 그는 과학자가 되었을까. 화니또는 여전히 계속 변화하는 자신을 이해하기 위해 마침내 정말로 자신과 대화하기 위해 덴마크로 떠나왔다. 정체성이란 하나 이상의 얼굴을 가질 수는 없는 건가. 일본, 소련, 미국이 서로를 소비하지 않았다면 한반도는 두 개의 섬이 되지 않았을까. 그랬다면 유라시아를 횡단하여 베를린까지 기차를 타고 이모네 집에 놀러 갈 수도 있었던 걸까. 우리의 어제는 누구에 의해 시작되었나, 또 우리의 오늘을 누구에게 물을 수 있는 걸까.

창밖에는 여전히 사람들이 지나간다. 녹슨 자전거를 타고 가는 백발의 노인의 눈에 아이의 파란 눈이 비친다. 엄마는 그 아이가 뛰어진 유모차를 지그재그로 몰아 그에게 길을 내어준다. 그 돌바닥 위로, 휠체어를 탄 그가 매일 남들보다 조금 높은 언덕들을 넘고 넘는다.

...

저마다의 수단으로

몸의 몸들로

어제의 어제를 업고

내일의 어제마저 예전한 채로

어딘가를 향해 계속 나아간다.

컨셉 및 의도

현재의 시간들은 분명 어떤 과거로부터 비롯되었고 이들의 정체성 또한 지나온 한국 사회의 파편으로부터 기인한다. 역사의 역사는 또 다른 결과를 낳고 이로 인해 이들은 스칸디나비아의 덴마크, 스웨덴에서 새로운 이름으로 태어났다. 전환하는 정체성은 결코 고체화될 수 없고 끝을 유보하는 대화는 점의 점들로 이어진다. 말과 춤은 하나의 챕터를 매듭짓지 않고 꼬리를 물고 복수적으로 전개된다. 산발되어 흩어지지만 어떤 응집된 에너지로 향하는 이 여성은 연대기적 내러티브의 중언이자 춤의 또 다른 잠재성을 알리는 축언이다. 승인되지 않은 말과 춤의 사이로 실수한 클리셰가 낳은 예견된 실패작은 오늘도 반전을 꿈꾼다.

창작 과정의 질문들

“대륙을 횡단하는 입체적 대화와 춤”

다양한 이유로 하나 이상의 home을 가지게 된 이들에게 한국의 근현대사는 이들을 어떻게 이끌었는지에 대한 질문과 함께 한국-스칸디나비안의 정체성이 세계 역사와 사회의 토대 위에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살펴본다. 오늘날 이들에게 남겨진 질문과 과제는 무엇이고 이들은 이 사회에 무엇을 남기고 어떻게 연관 짓고 있을까?

멘토 코멘트

곽아람 (국립현대무용단 기획팀장)

그를 만나는 날엔 유독 긴장이 되었다. 상투적이고 전형적인 나의 태도와 사고들이 이 영민한 작업자의 주파수에 방해가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기도 했다. 대한민국 서울이라는 거대한 초고밀도 인구가 모여 사는, 문화자본의 구조와 시스템이 다수의 정상(?) 범주들에만 적합하도록 설계되고 운영되는 도시에서 '소수'의 사람들은 구별되고 소외된다. 달라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의 태도와 가치는 단단한 껍질 속에 갇혀있다. 공교롭게도 우리와는 전혀 다른 자연환경과 인구, 제도적 환경을 가진 노르딕과의 인연으로 박한희 안무가의 작업이 시작되었고 움직이고 있다. 무엇이 정답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이 작업이 보여주는 가치와 가능성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어떤 태도이지 않을까 생각해봤다. 순수하고 날 선 목소리로, 예술과 작업에 대해 말하는 그의 모습이 여전히 인상적이다.



티오비그룹 Are You Guilty?

대표 소개

안무가이자 무용수로서 활동을 이어 나가고 있는 김민은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 창작과 예술사에서 공부를 마치고 TOB GROUP을 창단하게 된다. 모두가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작품을 만들고자 하는 철학으로 오늘날 현시대가 필요로 하는 예술작품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이어나가고 있다.

단체 소개

TOB 그룹은 동시대가 필요로 하는 작품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을 이어나가고 있다.

* TOB | Think Outside the Box의 앞 글자를 따 만든 약자.

주어진 틀(상자)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사고를 할 것을 의미한다.

이력 및 작품 활동

수상

2024 로테르담 국제 듀엣 페스티벌 (RIDCC) 1등(XL Production Award) 수상
2023 대만 'StrayBirdsDancePlatform' 초청상 수상 (2024 showcase & 2024 IPAP 초청)
2023 Copenhagen International Choreography Competition 〈Are You Guilty?〉1등수상
2023 International Choreographic Competition Hannover 〈Are You Guilty?〉 3등수상
2023 젊은 안무자 창작공연 〈Falling Up〉 최우수 안무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수상

이력

2025 로테르담 스카피노 발레단(Rotterdam Scapino Ballet) 초청 안무가
2025 독일 포츠하임 시립 극장(Theater Pforzheim) 초청 안무가
2024 독일 'TanzOffensive' 'EISFABRIK' 극장 초청작 〈Are You Guilty?〉
2024 국제현대무용제 (MODAFE) Collection#1 대극장 부문 〈Are You Guilty?〉
2023 국제현대무용제 MODAFE 대극장 부문 〈BARCODE〉

CONTACT

Instagram | @grouptob

공연(현대무용)

Are You Guilty?

11.1 (금) - 11.3 (일)

금 20:00, 토 19:00, 일 16:00

러닝타임 50분

관객과의 대화 11.3 (일) 공연 종료 후

전체 관람가

참여

퍼포머 | 이마드리드, 이창민, 이예림, 김민

작품 내용

“멀면 면 대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외면하고, 가까우면 가까운 대로
공포와 두려움이 너무 크다면 아무도 나서지 않았다.
대부분 사람이 느껴도 행동하지 않았고 공감한다면서 쉽게 잊었다.
내가 이해하는 한, 그건 진짜가 아니었다.”

손원평의 『아몬드』 중

수많은 사건과 상황 속에 존재하는 침묵과 행동.
그 경계선 사이에 일어나는 수십 개의 판단.
누가 가해자이며 누가 피해자인가.

컨셉 및 의도

주위에 사람들이 많을수록 곤경에 처한 사람을 돋지 않는 사회현상을 표현하는 ‘방관자 효과’는 행동보다는 침묵을 선택하게 되는 인간의 본성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이에 대해, ‘나 또한 방관자의 무관심으로 도움을 건네지 못한 적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고민에서 본 작품은 출발하였다.

누군가의 침묵이 어떤 이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 누군가의 행동은 더 큰 피해를 안겨주기도 한다. 그 반대의 경우도 있기에 종종 한 가지를 선택하기가 어렵다. 그렇기에 외면이라는 선택지는 편리하고도 안온한 세계를 허락한다. 침묵과 행동, 그 경계선 사이에는 난제가 있기에 누군가를 마땅히 비난하는 일은 많은 성찰이 필요한 작업이다. 우리는 이런 성찰 없이 누군가에게 손가락질하는 가해자가 되기도 하며, 이를 견뎌내는 피해자가 되기도 한다. 가해자, 피해자, 방관자 그리고 이러한 상황을 표현해내기 위해서 연극과 무용의 경계를 허물고자 하는 안무가의 의도가 담겨 있다.

‘무용수들이 대사 없이 책상을 타격하는 소리로만 대화가 진행되면 어떨까?’ 하는 아이디어로 작품을 풀어나갔다. 본 작품은 무음으로 진행이 되는 공연이지만 수많은 소리가 존재한다. 그 ‘소리’는 무용수들의 대사이면서 관객의 호흡을 결정하며 끊임없는 긴장감을 유발하는 동시에 작품의 주된 메소드이다.

창작 과정의 질문들

몸짓으로 내는 호흡과 소리가 퍼포머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을까?
1차원적인 비언어적 표현이 움직임으로 치환되었을 때 당위성이 충분한가?
무용수들의 몸짓뿐만 아니라 호흡과 소리를 통해 하나의 목소리적 표현을 하고자 한다.
추상적이고 소모적인 움직임 보다는 그들이 움직이는 데 있어서 뚜렷한 명분을 주고자 한다. 서사성이 주로 존재하지 않은 무용 작품 안에 얇은 서사를 끊임없이 제공하여 관객의 몰입도를 높이고자 한다.
다이나믹한 동작들도 시간이 지나면 무뎌지듯이 무음이 대다수 차지하는 작품 안에서는 긴장감 있는 긴 호흡을 유지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멘토 코멘트

곽아람 (국립현대무용단 기획팀장)

김민 안무가는 신인 안무가의 범주로 구분되지만, 활동 영역과 반경이 이미 남다르다. 김민 안무가의 작업을 몰랐을 때, 몇몇 안무가들이 그를 “참 잘한다.”라고 평가하는 것을 들었다. 내가 만나본 김민 안무가는 무척 스마트한 사람이었다. 본인이 좋아하고 흥미롭게 생각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도 집중해서 바라볼 수 있게 하는 능력이 탁월하다고 해야 할까? <당신은 유죄입니까?>는 이미 여러 번 공연을 하면서 현대무용 작품으로의 가능성을 충분히 검증받았다. 이번 유명 작업에서는 그가 시도하고자 하는 연극적 맥락이 얼마나 절묘하고 그럴듯하게 연결될 수 있는지, 실험과 시도가 의미 있길 기대해본다.



이지혜

blank 햄릿

이지혜는 대학에서 연극 연출을 전공한 후, 대학원에서 연극학을 공부했다. 오랜 시간 남아 있는 이야기, 이야기와 무대에 대한 애정 가득한 글자들에서 다시 연극 할 수 있는 힘을 얻곤 했다. 연극 곳곳에 새겨진 시간, 역사, 이야기 모두에 호기심을 가지고, 놓지 않고자 노력하고 있다.

2019년 극장과 시노그래피, 연극 창작자로서의 삶을 이야기했던 퍼포논문 〈셀프-리서치그라피〉 이후 본격적인 연출 작업에 관심을 두게 되었으며, 2023년 소포클레스의 〈안티고네〉를 재창작한 〈안티고네, 나는 영웅이 아니다〉를 시작으로 익숙한 이야기의 ‘틈’을 발견하고 이를 오늘, 여기에서 만날 수 있는 이야기로 확장하는 작업들을 시도해오고 있다.

이력 및 작품 활동

2023 〈안티고네, 나는 영웅이 아니다〉 재창작, 연출

2019 퍼포논문 〈셀프-리서치그라피〉 구성, 연출, 출연 외

CONTACT

Instagram | @24_blank_hamlet

공연(연극)

blank 햄릿!

12.4 (수) - 12.8 (일)

평일 19:30, 주말 15:00

러닝타임 90분

관객과의 대화 12.7 (토) 공연 종료 후

14세 이상 관람가

참여

이지혜(작/연출), 송성원(무대/소품 디자인), 박유진(조명 디자인), 지미 세르(사운드 디자인), 이윤진(의상 디자인), 장경숙(분장 디자인), 남하나(홍보/디자인), 강민범, 강전영, 김근혁, 성근창, 원채리, 조주경(출연)

작품 내용

“호레이쇼. 너는 살아남아. 내 이야기를 전해 다오. 그리고 나머지는 침묵이다.”

10년 전, 왕자 햄릿이 사망했다. 선왕의 죽음과 신속한 왕권 교체, 우발적인 살인, 간악한 살인 교사까지. 한 왕가를 파멸로 몰고 간 사건들이 햄릿의 죽음으로 막을 내린 것이다. 그리고 한 사람이 살아남았다. 모든 사건의 목격자이면서 죽음을 가운데에서 살아남은 유일한 생존자, 바로 호레이쇼다. 호레이쇼는 햄릿의 유지에 따라 다음 통치권자인 포틴브라스에게 사건의 전말을 알리고, 그를 통해 국가가 안정되는 데에 일조했다.

그게 자신이 살아남은 이유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자꾸만 죽은 이름들이 떠오른다. 남겨진 침묵을 비집고, 죽음이 얼굴을 들이미는 것이다. 그렇게 호레이쇼는 엘시노어를 떠났다.

그리고 10년, 호레이쇼가 돌아온다. 햄릿 왕자의 열 번째 추도식에 맞춰 스스로 다시 죽음과 마주한다. 살아남은 자에게 지난 죽음은 무엇이었을까.

“이제 진짜 이야기를 해야 한다.”

컨셉 및 의도

이야기의 끝에는 항상 누군가 죽는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주인공이 된다. 많은 경우 오래된 이야기에서 주인공은 죽음으로 결말을 맞고, 오래 기억되곤 한다. 그리고 대개의 이야기는 그러한 기억됨을 당연하게 여긴다. <_____ blank 햄릿>은 그 당연함에 대한 질문에서부터 시작했다. 죽임과 죽음 사이에서 고뇌하던 햄릿의 이야기에서 ‘틈’을 발견하고, 햄릿에 가려진 사람, 순간, 이야기들을 펼쳐보고 싶었다. 햄릿의 복수와 죽음이라는 사건을 가렸을 때 이야기는 무엇을 보여줄 수 있을까? 이 과정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을 만났다.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이 죽음 뒤에 떠안는 것들에 대해 고민했다.

그런 이유로 <_____ blank 햄릿>은 ‘죽음’ 그 자체로서의 사건이 아닌 ‘죽음 이후’에 주목한다. 특히, 남겨진 사람 ‘호레이쇼’를 중심으로 죽음과 애도에 대해 이야기 한다. 여러 죽음을 지켜보고, 기억하며 살아가는 호레이쇼야 말로 죽음을 곁에 두고 살아가는 우리와 가장 가까운 인물이기 때문이다. 호레이쇼의 시선으로 다시 쓰는 이야기를 통해 실재하는 죽음의 양을 감당하기 어려운 시대에서 어떻게 죽음을 애도하고, 기억하고, 기록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창작 과정의 질문들

관객들에게 닿을 만한 이야기일까?

동료 창작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이야기일까?

나는 나를 믿을 수 있을까?

대본과 씨름하는 몇 달 동안, 셀 수 없는 물음과 답이 있었다. 모든 질문이 ‘나’를 향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뇌의 어느 부분에서는 말과 말, 장면과 장면들이 서로 뒤엉켜 있다. 결국 이 소란함은 마지막에 마지막까지도 비슷한 모습이지 않을까. 다행인 것은 앞으로의 시간에는 함께 질문하고 대답해 줄 사람들이 있다. 혼자 묻고 답하던 것에 우리의 답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

이번 작업의 끝에서 만나게 되는 모든 순간이 당신들 덕분이다.

물론 아쉬운 점은 모두 나의 뜻이다.

멘토 코멘트

김덕희 (서울시뮤지컬단 단장)

신인 연출가가 '햄릿'을 공연한다는 건 다소 위험한 선택이다. 원작을 뛰어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많은 버전의 해석들을 피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지혜는 도전을 선택했다. 블랭크 햄릿은 햄릿의 친구이자 모든 사건의 유일한 증인인 호레이쇼로부터 시작한다. 포틴브라스가 준비한 햄릿의 10주기 추도식에 '햄릿'의 이야기들이 소환된다. 온통 죽음으로 뒤덮인 '햄릿'의 이야기들 속에 햄릿을 무대에 올리는 이지혜의 의지와 의미가 담겨있다.

서울문화재단

SFAC / Seoul Foundation for Arts and Culture

20년 역사를 이어가며

서울의 문화예술진흥과 시민의 문화 예술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04년 3월에 설립되었습니다. ‘문화와 예술로 행복한 서울만들기’라는 미션과 ‘문화와 예술의 다양한 가치를 발현시키고 시민과 함께 공감하는 선도적 문화예술기관’이라는 비전 아래 문화예술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서울의 도시 경쟁력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200억 규모의 예술지원금

매년 200억 규모의 예술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1,400건 이상의 폭넓은 창작활동이 매년 서울 시내 곳곳에서 시민을 만납니다. 연중 입주 작가 약 150명이 장르별 창작 공간에서 활동합니다. 또한, 교육, 컨설팅, 작품 유통 및 기획 등 예술가의 기반 활동을 지원하며 지속 가능한 예술 생태계를 구축해 안정적인 예술창작 환경을 마련합니다.

축제로 물드는 서울의 사계

서울문화재단의 대표 예술축제 통합 브랜드 <아트페스티벌_서울>은 서울서커스페스티벌, 서울거리예술축제, 한강노들섬클래식 등의 축제가 사계절로 편성돼 시민의 일상이 축제가 되는 서울을 만들어갑니다. 또한 매월 서울문화재단 창작공간에서 만나는 예술공감 콘서트 <서울스테이지 2024>가 시민에게는 예술적 경험과 삶의 여유를, 예술가에게는 예술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여 ‘일상에서 예술을 즐기기 좋은 도시 서울’을 만들어 갑니다.

25개 서울시 자치구와 함께

생활권 가까이에서 예술교육을 만날 수 있도록, 서울형 예술교육을 확산하고 새로운 공간에 노하우를 불어넣습니다. 문화예술계의 가장 믿음직한 파트너로서 ESG 경영을 실천하는 기업, 25개 서울시 자치구와 함께 ‘예술로 함께, 시민 곁에서’ 동행해 나갑니다.

일상에서 만나는 서울문화재단 창작공간

SPACE 1.

예술가의 창작 산실	연극	서울연극센터
	연극	대학로극장 쿼드
	연극	서울연극창작센터
	무용	서울무용센터
	문학	연희문학창작촌
	시각예술	금천예술공장
	시각예술	신당창작아케이드
	융합예술	문래예술공장
	거리예술/서비스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
	복합문화공간	노들섬
	장애예술가	서울장애인예술창작센터
	청년	청년예술청

SPACE 2.

특성화 문화예술공간	예술가	리스테이지 서울
	예술가	서울예술인지원센터
	예술교육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용산
	예술교육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양천
	예술교육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강북
	예술교육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은평
	예술교육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서초

청년예술청

SAPY / Seoul Artists' Platform_New&Young

청년예술인을 위한 창작 플랫폼 @충정로

청년예술청은 청년예술인의 지속 가능한 창작 활동을 위한
 ‘창작 실험 플랫폼’으로 2020년 8월에 개관했습니다.
 청년예술인의 창작 준비 및 발표, 교류를 위한 연면적 1,877㎡ 규모의 공간을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예술활동 진입단계의 청년예술인이 경력 및 분야의
 제한과 구분 없이 다양한 예술 활동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년예술인을 위한 열린 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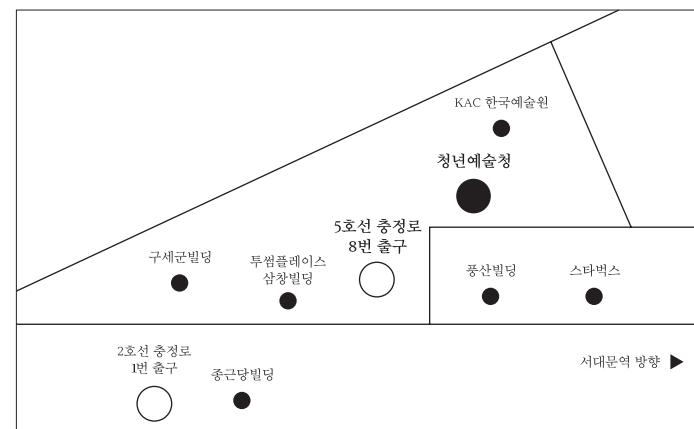
청년예술청의 모든 공간은 청년예술인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장소별 사용 방법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청년예술청 누리집 www.sapy.kr에서
 ‘대관예약안내’를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공간 명칭	수용 가능 인원	운영 내용	사용 방법
카페형 공유오피스	60명	개인 작업 및 회의가 가능한 열린공간	운영 시간 내 자유롭게 이용
회의실	12명	회의, 워크숍, 소규모 세미나 진행 공간	네이버 예약
연습실	18명	음향시설 구비된 연습 공간	
미디어실	4명	영상 제작 및 편집, 미디어 작업 공간	서울문화예술지원 시스템 예약 (scas.kr)
그레이룸	100명	공연, 포럼 진행 가능한 다목적 공간	
화이트룸	14명	쇼윈도형 소규모 전시 공간	

오시는 길

주소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더스타일하우스디센트럴 지하 2층 청년예술청

운영시간 화요일 - 일요일 *월요일 및 공휴일 휴관
13:00 - 22: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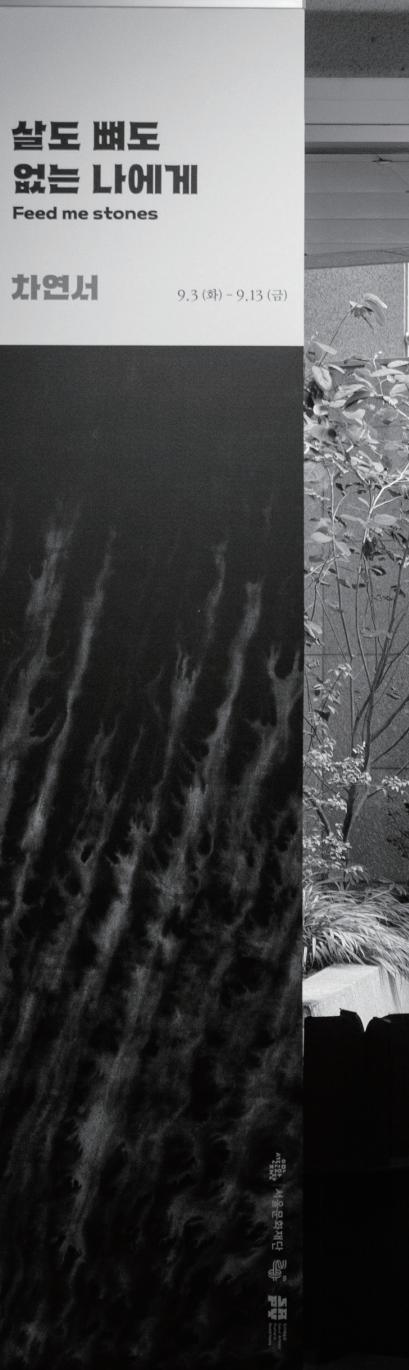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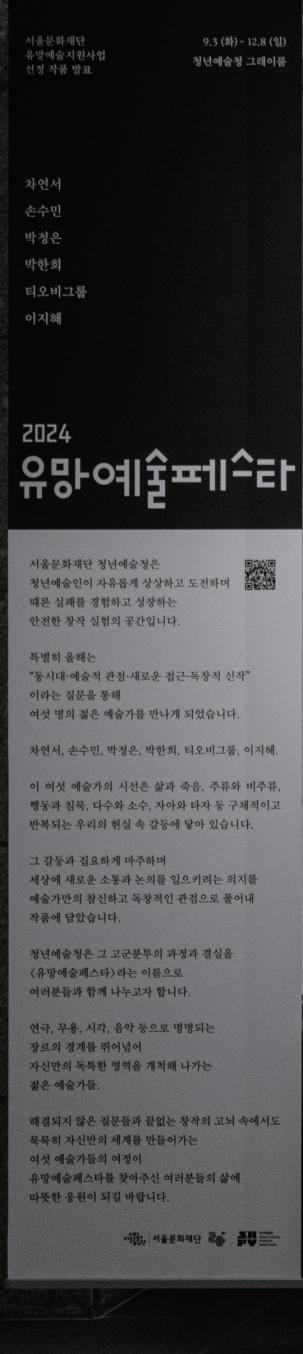
지하철 5호선·2호선 충정로역 8번 출구, 도보 1분

버스 충정로역(13-045 서대문역사거리 방면)
160, 171, 260, 270, 271, 273, 600, 602, 721, 742,
N26, 1002, 1004, 8600, 8601, 8601A, 6002(공항)

충정로역(13-046 아현역 방면)
160, 171, 260, 270, 271, 273, 700, 707, 721, 751, N26, 6002(공항)

주차 유료 주차만 가능 (더스타일하우스디센트럴 건물 지하 3층 주차장)
최초 30분 1,500원 / 10분당 500원 / 카드 결제만 가능

*유료 주차가 가능하나 주차장이 협소하여 가급적 대중교통 이용을 권장해 드립니다.





2024

유망예술페스티벌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 이창기
예술창작본부장 한지연
예술지원실장 남미진
청년예술팀장 황선영
청년예술팀 강민정 험수령 강수영 남궁태윤
박준경 최수연 이다현
청년예술청 대관매니저 진종환 신동민
카페매니저 이지현 김도경
홍보매니저 이원경

2024 유망예술페스타

총괄
청년예술팀장 황선영
청년예술팀 강민정

예술가 선정 심의
김덕희 (서울시미지컬단 단장)
송현민 (월간 객석 편집장)
신가은 (두산아트센터 프로듀서)
윤대성 (월간 댄스포럼 편집장)
홍경한 (미술평론가)

멘토
곽아람 (국립현대무용단 기획팀장)
김덕희 (서울시미지컬단 단장)
최빛나 (2025 하와이트리엔날레 공동예술감독)

협력 | 기획자의 집 (www.GHZ.house)
대표 홍유정
PM 김우정
디자인 김미영
인쇄 (사)한국장애인문화콘텐츠협회
출력 심애드

협력 | 앤리스 스튜디오 프로젝트
PD 오득영
AD 김명주
무대감독 진정민
무대조감독 박다빈
조명감독 박상현
음향감독 전민배
영상기록 홍효숙 (UPPLACE)
사진기록 김진호 (SUSTAIN WORKS)

발행 서울문화재단 청년예술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경기대로26-26)
발행인 이창기
발행일 2024.9
문의 서울문화재단 청년예술청

본 프로그램북은 무단 전재를 금하며, 내용의 일부를 가공하거나 인용할 때는 반드시 출처를 밝히시기 바랍니다. © 서울문화재단

서울문화재단 www.sfac.or.kr

청년예술청 www.sapay.kr

SNS

서울문화재단 instagram.com/sfac2004

서울문화재단 youtube.com/@sfacmovie

청년예술청 instagram.com/sapy.kr

관람 안내 및 문의

